

Johnson 문학에 있어서의 보통사람들에 대한 관심

—Life of Savage를 출발점으로 하여—

金 文 洙

I

T.S. Eliot는 Johnson 시선집에 붙인 한 평론에서 Pope, Swift, Prior, Gay 이후의 영국이 마치 “은퇴한 시골목사나 학교선생들의 시대”와 같다면 지나치게 “시적”이며 “전원시 전통”에 물든 영시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이러한 문학적 분위기 속에서 Johnson이 지니는 가치는 특별한 것으로 Eliot는 간주하고 있다.

In this rural, pastoral, meditative age Johnson is the most alien figure. Goldsmith is more a poet of his time, with his melting sentiment just saved by the precision of his language. But Johnson remains a townsman, if certainly not a courtier; a student of mankind not of natural history; a great prose writer; with no tolerance of swains and milkmaids.¹⁾

물론 위의 글에서 “감수성의 시대”의 시들에 대한 Eliot의 비판은 이론의 여지가 있을지 모르나, Johnson이 “낭만주의 시인처럼 사회에 대한 적이 아니”라²⁾ 확고히 사회속에 뿌리박은 사람으로서 다른 어느 주제보다 “인간”에 대한 탐구를 끈질기게 지속했다는 점은 대체로 동의할 수 있을 것이다. Johnson의 시에 대해 결코 완전히 동의하지는 않지만, F.R. Leavis 역시 Johnson의 시가 “대표적인 인간 경험”의 무게와 “인간 중심성”을 내보인다고 지적하고 있다.³⁾

이렇듯 여러 평자들이 지적하는 Johnson의 인간에 대한 관심이 그의 문학 속에서 어떤 구체적인 면모를 나타내고 있을까, 그보다 앞서 그가 생각하는 인간이란 과연 어떤 모습이며, 실제로 사회의 어느 부류의 인간에 대해 특히 관심을 보이고 있는가 하는 질문이 당연히 따라 나온다. 본고는 이러한 의문에 대한 탐색의 한 시도로서, 그의 전기작품중의 하나인 *Life of Richard Savage*(1744)에서 그 실마리를 찾아 보고자 한다. 이 작품은 후일의 *Lives of the Poets*(1779~1781)와는 시기상으로 훨씬 떨어져 있음에도 통상 같은 범주에 놓여진다. 또한 Richard Savage(?1693~1742)라는 인물이 문학적 성과보다는 개인적 기행으로 더 많이 알려진 삼류시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전기는 여러 Johnson 연구가들로부터는

1) 이 글의 원제목은 “Johnson's London and The Vanity of Human Wishes (1930)”; “Poetry in the Eighteenth Century,” *The Pelican Guide to English Literature: From Dryden to Johnson* ed. by Boris Ford (Harmondsworth: Penguin Books Ltd., 1957, 1976), p. 275.

2) F.R. Leavis, “Johnson and Augustanism,” *The Common Pursuit* (1952; rpt. New York: New York Univ. Press, 1964), p. 104.

3) F.R. Leavis, *Revaluation* (Harmondsworth: Penguin Books Ltd., 1936, 1978), pp. 111, 112.

대단한 평가를 얻고 있다. A.R. Humphreys 같은 평자는 “인간적인 측면에서 말해 *Lives [of the Poets]* 가운데 최상의 것”⁴⁾으로 이 전기를 평가하고 있으며, H.W. Donner 역시 “*Lives*를 흥미있게 해주고, 이들 가운데 최상의 것, 가령 *Life of Savage*를 불멸의 작품으로 만드는 것은 그[Johnson]의 인간에 대한 관심이다”⁵⁾라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이 전기에서 Johnson의 인간에 관한 관심의 구체적 면모를 살펴보려는 본고의 시도가 별반 어긋난 일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우선 *Savage*전에 대한 기존의 몇몇 평가를 검토해보면서 Johnson의 인간에 대한 관심이 어떻게 평자들에 의해 받아들여지는가를 살펴보자. Johnson의 충실한 기록자이면서도 항상 시야가 넓은 것만은 아닌 Boswell은 지나치게 교훈적으로 이 작품을 해석하고 있다. 그는 *Savage*를 “방탕, 나태, 배은망덕”의 악덕만 갖춘 “빵만을 위한 작가”로 부르면서 *Savage*전은 “더운 감정을 지닌 사람들에게 그것에 지나치게 탐닉하는 것을 경계해주는…매우 유익한 교훈”⁶⁾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가 하면 최근의 한 연구자는 *Savage*를 “부딪힘, 좌절, 재출발”의 과정을 반복하는 “Grubstreet의 돈키호테”라고 단정지으며 *Savage*전은 “실패로 끝나는 Grubstreet 모험여행을 그린 이 세기의 고전적 초상화”라고 평가한다.⁷⁾ Boswell이 ‘교훈’을 강조했다면 이 연구자는 ‘오락’을 우선 염두에 둔 것 같다. 두 사람 모두 Johnson의 인간에 대한 공감적인 시선을 제대로 파악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J.P. Hardy는 Johnson이 이 “그럴듯 하고 교양있는 영락자”에 대해 “내면적인 공감”을 지니고 이 전기를 쓰기는 하나 그의 태도에는 심리적 “긴장”이 내재해 있다고 보고 있다.⁸⁾ Hardy의 시각은 한결 발전된 것이기는 하나 Johnson의 태도를 포괄적인 태도로 파악하지 못하고 단지 “갈등”으로만 보는 데는 문제점이 없지 않은 것 같다. Leopold Damrosch의 설명은 보다 포괄성을 지니고 있다. 그는 Johnson이 인간의 비극적 상황을 객관성과 감정의 폭을 지니고 대처하고 있다면서 그 일테로서 *Savage*전은 “한 편의 진정한 비극이지만 공감과 명징성의 특징적인 혼합에 의해 절제된” 작품으로 설명하고 있다.⁹⁾ Walter Raleigh의 견해는 앞서의 Boswell이나 Curley의 관점과 정반대라는 점에서 흥미롭다. 그는 Johnson의 *Savage*에 대한 태도는 “완전히 자애심과 관대성”의 발로이며 이 전기는 “시적인 기질에 대한 변호—여지껏 쓰여졌거나 생각된 것 중에 가장 진실하고 인정적인 변호”라고 말한다.¹⁰⁾ 따라서 이 전기에서 원칙없이 살아간 한 시인의 삶에서 그 위험성의 인식이라는 교훈만을 찾는 속좁은 사람들에게는 Johnson의 태도는 당혹스럽게 보였을 것이라고 Raleigh는 부연

4) A.R. Humphreys, “Johnson,” *Pelican Guide: From Dryden to Johnson*, p. 418.

5) H.W. Donner, “Dr. Johnson as a Literary Critic (1954);” rpt. in *Samuel Johnson: A Collection of Critical Essays*, ed. by Donald J. Greene (Englewood Cliffs, New Jersey: Prentice-Hall Inc., 1965), p. 112.

6) James Boswell, *Life of Johnson* (1791; rpt. Oxford: Oxford Univ. Press, 1953, 1983), pp. 118-20.

7) Thomas M. Curley, *Samuel Johnson and the Age of Travel* (Athens: The Univ. of Georgia Press, 1976), pp. 120-22.

8) J.P. Hardy, *Samuel Johnson: A Critical Study*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1979), pp. 46-7.

9) Leopold Damrosch, Jr., *Samuel Johnson and the Tragic Sense* (Princeton: Princeton Univ. Press, 1972), p. 107.

10) Walter Raleigh, *Six Essays on Johnson* (Oxford: The Clarendon Press, 1910), pp. 19, 172.

설명한다.

위에서 우리는 Savage전에 대한 몇가지 기존 해설들을 살펴보았는데, 우선 이 작품에서 한 영락한 시인의 기행을 흥미위주로만 그렸다는 오해를 줄 견해나 이러한 시인의 몰락을 통해 방탕한 삶의 위험성에 대한 직접적인 경고로서 오로지 이 글이 기도되었다는 견해는 쉽게 무시해도 괜찮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Johnson의 인간에 대한 애정이 무한정하다는 식의 해석도 받아들이기 곤란하다. Savage의 삶의 전반적인 불운에 대해 기본적으로 공감적인 시선을 유지하면서도 사실에 대한 명징한 시각을 함께 한다는 Damrosch의 견해에 귀 기울일 만하다.

그러나 Johnson이 “문학에서 전기적인 부분이 내가 가장 사랑하는 부분이다”라고 Boswell에게 언급했다든가, Boswell이 “문헌학과 전기가 그[Johnson]의 가장 선호하는 연구분야”¹¹⁾라고 적고 있다는 사실에서 Johnson이 전기작업에서 단지 대상인물에 대한 평가만을 염두에 두는 것은 아니고 보다 적극적인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고 짐작해 볼 만하다. Idler 84의 서두에서 그는 “전기는 모든 서술적인 문학 가운데…가장 쉽게 삶의 효용에 적용되는 글이다”¹²⁾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그 효용이라는 것이 어떻게 한 인물이 성공하고 실패하게 되었는가 하는 외적인 사실의 묘사에서 즉각적인 교훈을 얻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모든 인간들에게 공통적인” “인간 상황의 보편성”을 전기가 제시하므로써 그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I have often thought that there has rarely passed a life of which a judicious and faithful narrative would not be useful. For not only every man has, in the mighty mass of the world, great numbers in the same condition with himself, to whom his mistakes and miscarriages, escapes and expedients, would be of immediate and apparent use; but there is such an uniformity in the state of man, considered apart from adventitious and separable decorations and disguises, that there is scarce any possibility of good or ill, but is common to human kind. (*Rambler* 60, p. 182)

“우리는 똑같은 동기에 의해 모두 같이 자극되고 똑같은 오류에 의해 기만당하고, 다같이 희망에서 생기를 얻고, 위협의 방해를 받고, 욕망에 휘감기며 쾌락에 유인당하(*Rambler* 60, p. 183)”기 때문에 전기는 이러한 보편성의 재현이라는 대전제를 걸어야 한다고 Johnson은 주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그의 전기문학론에 입각하여 그의 전기중 최고작으로 간주되는 Savage전에서 Johnson이 생각하는 보편적인 인간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점검해 보기로 하자.

II

Johnson은 Savage전에서 그의 대상인물의 성격을 묘사하면서 그의 “특출한(distinguishing)” 성격이라는 표현을 자주 하고 있다. 그 특출한 성격은 때로는 Savage의 긍정적인 측면을 지적하는 수도 있고 때로는 그가 특별히 결핍한 덕목을 지적하는 수도 있다. Johnson

11) Boswell, pp. 301, 1090.

12) Frank Brady and W.K. Wimsatt eds., *Samuel Johnson: Selected Poetry and Prose* (Berkeley: Univ. of California Press, 1977), p. 268. (Johnson의 작품의 인용은 별도로 밝히지 않은 경우 모두 이 책에서 하며 이하 페이지 수만 밝힘.)

은 전기를 쓰면서 결코 대상인물의 긍정적인 면만을 강조하지는 않는다. “만약 어떤 사람이 ‘찬양시’를 쓸 경우에는 그는 악덕을 눈에 안보이게 해야 하지만, 그가 ‘전기’를 쓰겠다고 공언한다면 그는 실제로 있는 그대로 그것을 제시해야 한다”¹³⁾라는 그의 언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Johnson은 대상의 어두운 면도 분명히 전기에 제시한다. 왜냐하면 “죽은 자의 기억에 우리가 배려를 해야 한다면, 지식과 미덕과 진실에 바쳐야 할 배려가 더 많(*Rambler* 60, p. 185)”기 때문이라고 그는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성에의 충실이라는 그의 전기 문학론은 그가 Savage전에서 제시한 양면의 성격들이 모두 진실한 것으로 믿게 해준다. 이 양면을 종합할 경우 우리는 Savage의 완벽한 모습을 볼 수 있게 되고 나아가서 보편적인 인간성의 전모를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제 Savage의 그 “특출한” 점들을 차례로 살펴보자.

첫째로 Savage에게서 가장 특징적인 성격으로 거론되는 것은 그의 ‘동정심(compassion)’이다.

Compassion was indeed the distinguishing quality of Savage; he never appeared inclined to take advantage of weakness, to attack the defenseless, or to press upon the falling; whoever was distressed was certain at least of his good wishes; and when he could give no assistance to extricate them from misfortunes, he endeavored to soothe them by sympathy and tenderness. (p. 579)

Savage는 그 자신이 불운한 출생과 가난으로 인해 타인의 동정을 불러일으키는 인물이면서도 자기보다 더 비참한 처지의 사람들에게 애정을 잃지 않고 있음을 Johnson은 높이 평가하고 있다. 특히 그의 타인에 대한 ‘공감의 한 실례로서 Johnson이 제시하는 한 사건은 인상적이다. Savage는 야반에 어떤 여인숙에서 다른 패거리들과 충돌중에 실수로 한 명을 죽이게 되었다. 이 사건이 재판에 회부되자 상대측의 한 여인이 Savage가 먼저 공격을 하였다는 위증을 하여 그는 매우 곤경에 빠지게 되고 마침내 살인죄의 누명을 쓰게 되었다. 이후 어렵게 사면을 얻어 석방된 Savage는 어느 날 그 위증한 여인(창녀)과 길거리에서 우연히 마주치게 되었다. 그는 여인에게 악의를 품지도 그녀의 비참한 모습을 비웃지도 않았다. 오히려 그는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얼마의 돈도 둘이 똑같이 나누어 가졌다는 것이다. Johnson은 이러한 일은 다른 시대 같으면 성자나 영웅이 될 정도의 일이라면서 그의 “비범한 관용성”을 극찬하고 있다. 또한 Savage는 말년에 빚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자기보다 더 불행한 동료 죄수들에게 인간적인 자애심을 내보였다고 Johnson은 적고 있다.

Savage의 이러한 공감적 성격의 강조는 바로 Johnson 자신이 유지하려고 애쓴 인간에 대한 사랑의 투영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Johnson이 불행한 인간들에게 깊은 동정을 보이고 있음은 그의 실생활에서 증명되는 것이다. 눈먼 Miss Williams와 몸이 성치 않은 Dr Levett 외에도 많은 불운한 사람들이 Johnson의 거처에서 기거한 사실이나 그의 하인에게 공부까지 시키면서 돌보아 준 일화는 Johnson의 동정적 성격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들이다. 흔히 주장되는 그의 무지막지한 공격성이나 지나친 경쟁심은 Johnson을 ‘문단의 대부(Great Cham)’ 혹은 ‘문학적 독제자’로 몰아붙이던 19세기의 Johnson관의 산물이다. 물론 그는 지적인 적들에게는 때로 가차없이 공격을 가하기도 하지만 이것 역시 그의 “선천

13) Boswell, p. 840.

적 투쟁가¹⁴⁾로서의 성격이라기 보는 것은 지나치다고 할 수 있다. 그가 인간들의 전장에서 살륙을 독수리들의 동족살상으로 비유한 *Idler* 24를 후일 단행본 출간시 삭제한 사실에서도 우리는 Johnson이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애정을 항시 유지하려고 애썼다는 점을 엿볼 수가 있다. “그는 기회있을 때 마다 Swift를 공격하¹⁵⁾였고 특히 Swift의 *Gulliver's Travels*의 Houyhnhnms 부분은 매우 불쾌하게 받아들였다.¹⁶⁾ Johnson은 결코 인간혐오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는 것이다.

‘공감’을 진정한 인간이 지녀야 할 자질로 파악하는 그의 사고의 근저에는 인간의 삶이 기본적으로 ‘불운’으로 가득차 있다는 생각이 깔려 있다. Johnson이 Savage에게 동정을 보이는 가장 큰 이유는 그가 이 전기 군데군데에서 밝히듯이 Savage의 삶이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수 없는 불운에 의해 지배당하고 있다는 그의 기본 인식에서 유래한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이 전기의 도입부의 일반화된 진술에서 잘 드러난다.) 이러한 “침울한 운명의 미로(the clouded maze of fate)”¹⁷⁾ 속에서 동료 인간의 오류는 힐난받기보다는 오히려 동정을 유발하는 것으로 Johnson은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인간불행의 인식과 관련해서 나타나는 Savage의 두번째 특성은 ‘불굴의 정신(fortitude)’이라고 말할 수 있다. “절망은 Savage의 성격이 아니었다(p. 601)”, “Savage는 자주 지독한 곤경에 처하게 되었지만 그는 이것을 불평하지 않았다. 그는 행운을 절제있게 향수하기보다는 불운을 불굴의 정신으로 견디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다(p. 592)”, 혹은 “잘 참는다는 미덕은 그에게 부인될 수 없다(p. 621)” 등과 같은 표현에서 우리는 Savage의 불굴의 정신을 엿볼 수 있고 Johnson이 이를 크나큰 미덕으로 받아 들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Johnson의 삶 역시 시력, 청력의 결함이라는 육체적 질병과 평생 지녀온 우울질과의 싸움, 게다가 초기의 가난과의 싸움(그의 *London*의 많은 귀절에서 발견될 수 있다), 그리고 아내와의 사별후 고독속에서도 끝까지 활기와 선한 본성을 잃지 않으려는 투쟁의 연속이었다. 특히 만년의 병마와 시달리면서도 “나는 정복당할지언정 항복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외치는 정신적 강건성은 Boswell의 표현처럼 사자와 혈투를 벌이는 원형경기장의 투사의 자세와 다를 바가 없다.¹⁸⁾ 그가 *The Vanity of Human Wishes*의 결부에서 전통적인 기독교의 덕목인 ‘믿음, 소망, 사랑’ 대신에 ‘믿음, 인내, 사랑’을 내세우는 것도 바로 이러한 불굴의 정신의 강조로 보아 무방할 것이다.

이러한 Johnson의 자기투쟁을 Bronson처럼 “선천적 투쟁가”의 행적으로 보는 것은 적절치가 못한 것 같다. 오히려 W.J. Bate가 William James의 표현을 빌어 설명하듯이 Johnson은 선천적인 정신적 평온과 조화로운 인격완성을 얻은 “일차탄생형(once-born)”이 아니라 지속적인 자기투쟁과 절망을 겪은 후 위태롭게 자기완성을 이룩한 “이차탄생형(second-born)”의 한 전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Keats가 Shakespeare에 대해 “그는 알레고리의 삶을 영위했다. 그의 작품은 그 삶에 대한 논평이다”라고 언급했듯이 Bate의 말마따나 Johnson 역시 *The Pilgrim's Progress*의 “Valiant-for-truth”처럼 자기투쟁의 역경을

14) Bertrand H. Bronson, “Johnson Agonistes (1944)”; rpt. in Greene ed., *A Collection*, p. 38.

15) Boswell, p. 595.

16) *Life of Swift*, p. 461.

17) *The Vanity of Human Wishes*, l. 6.

18) Boswell, pp. 1358, 427.



살아간 “우화적 인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¹⁹⁾

세번째로 Johnson이 Savage에게서 발견하는 진정한 인간의 덕목을 ‘도덕성(morality)’이다. 때로는 Savage의 행위는 비난의 여지도 있으나 그는 항시 “미덕의 위엄성, 그 아름다움, 그 필요성에 대해 강한 의식”을 지니고 있었으며 그의 글은 “정신의 고양과 도덕성과 경건성의 전파(p. 594)”에 기여한다고 Johnson은 주장한다. 또한 Savage의 *The Wanderer*를 논하면서 다른 여러 결점이 지적될 수 있으나 “이 시가 미덕의 효용의 증진이란 바로 그 목표를 위해 쓰여졌으며 종교의 효용성에 대한 강력한 의식과 더불어 쓰여졌음(p. 585)”을 부인할 수 없다고 Johnson은 지적한다.

Johnson 문학에서 “도덕성”이라는 준거는 어떤 식으로든 피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가 *Life of Milton*에서 Milton의 교육방식을 논하면서 단언하듯이 “우리는 항시 도덕가이고 단지 우연히 기하학자이(p. 393)”기 때문이다. 흔히 그의 지나친 도덕주의(혹은 교훈주의)에 대해 많은 평자들이 비난을 한다. Johnson에 대해 매우 호의적인 Donner의 논문도 Johnson의 “가장 현저한 오류는…예술의 필수적인 도덕성에 대한 가끔씩의 지나친 강조인 것 같다”라고 적고 있다.²⁰⁾ Leavis는 나아가 “그[Johnson]의 교훈주의적 오류에의 예속”이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비판적이다.²¹⁾ 그러나 최근의 Johnson 연구가들은 Johnson이 ‘시적 정의(poetic justice)’에 대해 그렇게 엄격히 집착하지 않았음을 밝혀내고 있다.²²⁾ 예를 들어 *Life of Milton*에서 Johnson은, Adam이 정복당하므로 서사시 주인공으로서의 자질이 없다는 Dryden의 비판을 반대하면서 “성공과 미덕이 항시 동반되는 것은 아니므로…주인공이 불행하지 않아야 한다는 이유는 없다(p. 434)”라고 설명한다. Johnson은 문학의 목표의 하나로서 항시 도덕성의 제고를 주장하고 있으나 그 도덕성이 결코 비현실적이거나 교리적인 엄격성을 뜻하지는 않는다. 소설의 도덕적 목표를 논하는 *Rambler* 4에서도 그는 소설이 “가장 완벽한 미덕의 이상”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그 미덕이 “천사적(angelical)이 아니고 개연성을 넘어서지 않는(p. 158)”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Johnson 문학에서의 도덕성의 위치는 Jean Hagstrum의 다음의 귀절에 잘 나타나 있는 것 같다.

Morality, Johnson would seem to tell us, is in some form inescapable; and that literature which does not choose to illustrate and enforce it will in one way or another have to reckon with it. Literary pleasure and literary passion; pity, fear, and wonder; dramatic approval or disapproval; and sympathetic or antipathetic curiosity—all these are ultimately impossible without moral value.²³⁾

이제 Savage의 결점으로 지적되는 성격들을 살펴보자. 우선 그의 ‘일관성(constancy)’의 결점이 자주 지적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Dennis와 가까이 지내면서도 그를 비난하는

19) W.J. Bate, *The Achievements of Samuel Johnson* (New York: Oxford Univ. Press, 1955), pp. 61-2 참조.

20) Donner, in Greene ed., *A Collection*, p. 108.

21) F.R. Leavis, “Johnson as Critic (1944)” rpt. in Greene ed., *A Collection*, p. 81.

22) William Edinger, *Samuel Johnson and Poetic Style* (Chicago: The Univ. of Chicago Press, 1977), pp. 181-85 참조.

23) Jean H. Hagstrum, *Samuel Johnson's Literary Criticism* (Chicago: The Univ. of Chicago Press, 1952, 1967), p. 177.



시를 Pope에게 써준 일, 평소의 정치적 소신과 달리 몇편의 사례를 위하여 Horace Walpole의 찬양시를 쓴 일, *The Wanderer*의 ‘현증사’에서 그 성품을 극찬한 Lord Tyrconnel을 그후 맹렬히 비난한 일, 겉으로는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의 약점을 폭로하는 풍자시를 쓴 일 등을 열거하면서 Johnson은 때로는 Savage가 “문학적 위선(p. 583)”을 범하고 있다고 질타한다. 이러한 Savage의 결점들을 Johnson은 그의 불행한 삶의 소산으로 보고 가능한 한 동정하며 넘긴다.

그러나 이러한 비밀관성, 특히 작가의 글과 실제 행동의 불일치는 도덕적인 Johnson에게는 항시 부담이었다. *Rambler* 14는 그의 이런 고민의 단적인 표현이다. 이 글에서 그는 이론(작가의 글)은 “완성의 이상형(p. 164)”으로써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단정짓는다. 그러나 작가는 “그의 실례로써 그것의 가능성은 입증해야만 한다(p. 165).” 따라서 Johnson은 최소한 작가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쁘게 행동해서는 안된다고 경고한다. Johnson의 이러한 고집은 1781년의 한 편지에서 자신의 일생의 문학작업을 슬회하는 가운데 잘 나타난다.

I have through my whole progress of authorship honestly endeavoured to teach the right, though I have not been sufficiently diligent to practise it, and have offered mankind my opinion as a rule, but never professed my behaviour as an example.²⁴⁾

그러나 Savage가 가장 결핍하고 있는 덕목으로 지적되는 것은 ‘prudence’이다. “prudence는 그[Savage]가 특출하게 소유한 덕목의 하나는 아니었다(p. 589)”라고 Johnson은 단정적으로 말한다. 평생 빗쟁이에게 시달릴 만큼 금전관계에 능하지 못한 Richard Steele과의 접촉에서 Savage는 절약이나 prudence를 배울 수가 없었다(p. 567)든지, 혹은 후일 Savage가 왕비의 사후에 그녀에 대한 애도시를 쓰면서 기왕에 수혜받던 연금을 계속 하사해 줄 것을 왕에게 암시적으로 요청하는 prudence를 보였다(pp. 610-611)든지 하는 귀질에서처럼 이 덕목은 금전적 절약, 이체에 능함, 처신의 신중함등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전기의 끝부분에서, 이 글이 줄 수 있는 효용이 불운속의 강건한 인내심의 고양과 더불어 “삶의 보편적 처세법”을 무시하는 자는 그 무엇도 “prudence의 결핍”을 보상해 주지 못할 것이라는 교훈의 작성에 있다는 Johnson의 말에서 우리는 이 단어가 좀더 큰 뜻을 지니고 있음을 감지하게 된다. 또한 Savage는 “고통을 통해 결코 더 현명해지지 못했다(p. 594)”고 Johnson은 적고 있는데, prudence란 다름아닌 이러한 경험을 통한 지혜의 축적을 뜻하는 것이다. prudence는 도덕성(morality)이나 미덕(virtue)에는 미치지 못하는 덕목이지만 일상의 삶에서 얻는 ‘경험적 지혜’인 것이다. *SOD*에도 prudence의 정의중에 “실용적 지혜(practical wisdom)”라는 설명이 있고 보면 이것이 오늘날 사용되는 의미 이상을 지니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지만, Hobbes의 *Leviathan*을 참조해보면 이 단어가 17, 8세기에는 보다 확고한 뜻으로 쓰였음을 알게 된다. Hobbes에 따르면 우리가 통상 “Wisdom”이라고 부르는 것 가운데에는 학문에 의해 획득되는 “Sapience”와 경험에 의해 축적되는 “Prudence”의 두 종류가 있다는 것이다. 이 prudence는 과거의 행위의 결과에서 미래의 유사한 행위의 결과를 예측하는 능력(Foresight)으로서 그 중요성에 주목해야 된다고 Hobbes는 역설하고 있

24) J.E. Brown ed., *The Critical Opinions of Samuel Johnson* (Princeton: Princeton Univ. Press, 1926), p. 153에서 재인용.

다.²⁵⁾

Johnson의 이 '경험적 지혜'에 관한 언급은 여러 글에서 자주 나오지만 특히 *Preface to Shakespeare*에서 Shakespeare의 장점을 논하는 첫부분에서부터 강조되고 있다. 이 극작가는 "보편적 인간성의 올바른 재현"을 통해 "실용적 공리와 처세의 지혜"를 주며 그의 작품에서 "사회적, 개인적 처세법"이 모아질 정도라고 Johnson은 칭찬하고 있다(p. 301). *Rambler* 4에서도 소설의 목표 가운데 "덕행을 손상함이 없이 prudence를 증가시키는 것"을 포함시키고 있으며(p. 157), *Rambler* 60에서는 전기는 세속적인 위대성이 아니라 "인간들이 각기 prudence와德行에서 남보다 탁월한 것"을 그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p. 183). Johnson이 이렇게 자주 prudence라는 덕목을 강조하는 것은 당시의 경험주의적 사고와도 무관하지 않을 것 같다. 경험주의나 계몽주의등의 18세기적 사상을 완전히 거부하는 Blake가 *Marriage of Heaven & Hell*에서 prudence를 "무능의 구애를 받는 돈많은 못생긴 노처녀(a rich ugly old maid courted by incapacity)"로 단정하며 *The Book of Urizen*에서도 "영원한 신의 법률(the eternal laws of God)"로서 "prudence의 법칙"을 만들었다고 비난하는 대목에서²⁶⁾—이 단어의 의미가 시대의 변천에 따라 달라진 것을 감안하더라도—오히려 역설적으로 18세기 영국에서의 prudence의 중요성은 의미를 더하게 된다. 이 덕목은 이론이나 법칙보다는 실행에서 얻어지는 것이며 작가의 책에서보다는 보통사람들의 일상의 행동에서 더 잘 얻어지는 것들이다. *Savage*전에서 Johnson이 "그의 삶의 최대의 실수는 미덕에 대한 사랑을 미덕의 실천으로 착각한 것이었다(p. 594)"라고 단언하는 것을 보면 Johnson이 실천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며 실천을 통한 경험적 지혜에 얼마나 큰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지 뚜렷이 알 수 있다.

III

위에서 우리는 *Savage*의 여러가지 성격상의 특질들을 정리해 보았고 아울러 Johnson의 다른 저작들이나 그의 실생활에서도 이 자질들의 중요성을 살펴 보았다. 그러나 우리의 주된 관심은 *Savage* 개인에 대한 Johnson의 평가에 머무는 것이 아니다. 이미 이 글의 초반에서 지적했다시피 Johnson은 전기의 효용성은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보편적 인간성의 제시에 있다고 한 만큼, *Savage*의 장점, 단점은 모든 인간들에게 공통적인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그렇다고 Johnson이 파악한 인간의 모습이 추상적인 관념형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이미 많은 학자들이 밝히고 있듯이, Johnson은 "일반화의 장엄성(*Life of Cowley*, p. 369)"을 문학이 지향해야 할 목표로 삼고 있지만 결코 이것이 추상성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²⁷⁾ 오히려 그의 일반성(generality)은 구체적인 개별성(particularity)의 축적위에서 추출된 것들이다. 따라서 우리는 *Savage*전에서 찾아본 인간의 전형과 그 이상적 덕목들이 실제로 사회의 어느 곳에서 발견될 수 있는 것들이라고 추정하게 된다.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그 구체적인 모습을 이 전기의 한 부분에서 발견하게 된다.

25) Thomas Hobbes, *Leviathan* (1651; rpt. Oxford: Clarendon Press, 1909, 1958), pp. 21, 38, 55-6 참조.

26) W.H. Stevenson ed., *Blake: The Complete Poems* (London: Longman Group Ltd., 1971, 1980), pp. 108, 268.

27) Leavis, *Revaluation*, pp. 111-113, 혹은 Humphreys, p. 404 참조.

Savage의 *On Public Spirit, with Regard to Public Works*라는 시에 대해서 비교적 길게 논하는 중에 Johnson은 다음과 같이 Savage의 문학적, 인간적 변모에 대해서 주목한다.

In a poem written by him[Savage] in his youth...he declares his contempt of the contracted views and narrow prospects of the middle state of life, and declares his resolution either to tower like the cedar or be trampled like the shrub; but in this poem[*On Public Spirit, with Regard to Public Works*], though addressed to a prince, he mentions this state of life as comprising those who ought most to attract reward, those who merit most the confidence of power, and the familiarity of greatness; and, accidentally mentioning this passage to one of his friends, declared that in his opinion all the virtue of mankind was comprehended in that state. (p. 603)

“경험이 Savage의 생각에 일으켜 놓은 변화(p. 603)”는 바로 다름아닌 “중간층(middle state)”의 삶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라고 Johnson은 흐뭇해 한다. 오늘날의 독자들은 혹시 이 중간층이라는 것이 경제적 의미의 중산층이라는 개념으로 해석하여 Johnson의 보수적 기질의 한 예증으로 삼을만도 하겠지만, 위의 귀절에 앞서 나오는 부분을 살펴보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다. Savage가 그의 시에서 다룬 인물들은 “불운 때문에 자신의 고국이 더이상 즐겁거나 안전하지 못하여” 개척지를 찾아 먼 대륙으로 떠난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자기 고국에서 당하고 겁내던 고난들을 피하기 위해...피난처를 찾아 다른 나라로 내쫓긴(p. 602)” 그런 사람들이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우리는 Johnson이 지칭한 중간층이 결코 부유한 중산층을 뜻하는 것이 아님을 확실히 알 수 있다. 오히려 이런 불운을 항시 안고 사는 ‘보통사람들’이 Johnson이 말하는 중간층이며 오히려 그들에게 “인간의 모든 미덕들이 응축되어 있다”고 Savage를 통해 Johnson은 말하는 것이다.

지상에서의 완벽한 행복을 찾아 “삶의 선택(the choice of life)”의 여정을 떠나는 *Rasselas*에서도 우리는 Johnson의 보통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엿볼 수 있다. *Rasselas*와 그의 무리들은 행복을 찾아 카이로로 온 후 대조적인 삶의 양상들을 구경한다. 활기에 찬 젊은이들(17장)과 금욕적인 철학자(18장), 목동(19장)과 부자(20장), 은둔자(21장)와 학식있는 자들의 모임(22장)을 각각 구경하나 행복의 참모습은 찾지 못한다. 그후 왕자와 공주는 서로 나누어서 궁정의 삶과 보통의 삶을 조사한다. 이 부분은 23장에서 28장까지 상당히 길게 묘사되고 있다. 물론 여기서도 Johnson은 이 작품의 특징적인 방식대로 ‘결론’을 내리지 않는다. 그러나 왕자가 궁정의 삶에서는 결코 행복이 발견될 수 없다면서 보통사람들의 미덕있는 생활에서 행복은 찾겨질 것이라고 매우 웅변적으로 외치는 귀절에서 공주는 그 반대임을 단호히 주장하지 못하고 “완벽한 행복이 완벽한 선택에 의해 획득되는지 여부는 이 세상이 결정할 기회가 없을 것이다”라고 소극적으로 물러난다(p. 115). 이어서 왕자는 “왕국의 운명을 결정하려고 애쓸 필요는 없다. 우리가 할 일은, 좁은 범위내에서나마 타인의 행복의 증진을 통해 자신의 행복을 얻으려 애쓰면서, 우리같은 존재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하는 것이다(p. 116)”라고 말하면서 이 논의를 종결짓는다. 적어도 이 논쟁에서는 Johnson이 시사하는 결론은 명확하다. *Preface to Shakespeare*에서도 우리는 Johnson의 보통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드러나는 귀절을 발견할 수 있다. 그는 Shakespeare의 희극의 우수성을 논하면서 그 대사가 결코 “교양있는 자”들의 세련된 언어도 아니며 “학식있는 자”들의 상규에 벗어난 어법도 아니라면서 이러한 문체는 “우아하려는 욕심없이 오로지 이해

되기 위해 말하는 자들”의 “삶의 일상의 대화”에서 발견되는 것이라고 칭찬한다(p. 306). 자국어의 개선, 보존에 관해 지극한 관심을 보인 Johnson이 가장 확고하고 지속적인 언어로서 보통사람들의 언어를 지적했다는 것은 무척 의미있는 일이다.

하지만 Johnson의 보통사람의 삶에 대한 관심이 가장 잘 표현된 곳은 *Journey to the Western Islands*에서 Bamff지방의 풍물을 보며 느낀 그의 단상을 기록한 부분이 아닌가 한다.

The true state of every nation is the state of common life. The manners of a people are not to be found in the schools of learning, or the palaces of greatness, where the national character is obscured or obliterated by travel or instruction, by philosophy or vanity; nor is public happiness to be estimated by the assemblies of the gay, or the banquets of the rich. The great mass of nations is neither rich nor gay: they whose aggregate constitutes the people, are found in the streets, and the villages, in the shops and farms; and from them collectively considered, must the measure of general prosperity be taken. As they approach to delicacy a nation is refined, as their conveniencies are multiplied, a nation, at least a commercial nation, must be denominated wealthy.²⁸⁾

이와 같은 말은 다른 작가도 많이 했던 말들이다. 중요한 것은, 한 영문학사책이 기록하고 있듯이, Johnson에게는 “이러한 확신이 예술과 삶에 대한 판단의 기반을 형성하고 있다”²⁹⁾는 점이다. 그가 자기의 실제 삶에서 이러한 보통사람들에 대해 애정을 가지고 그들의 현실적 이로움을 위해 애썼다는 것은 앞에서 말한 Miss Williams, Dr Levett 등을 자신의 거처안에 보호시켜주었다는 사실에서 이미 밝힌 바 있다. 그의에도 그가 흑인노예제에 대해 강력한 비판을 했다든지 채무변상 불능자의 투옥행위나 형법의 무자비함에 대해 항시 비판적이었다는 사실에서도 Johnson의 약자에 대한 관심은 확연히 드러난다. 이제 그를 보수주의자의 원형으로 본다면 파당적인 Tory주의의 예측자로 보는 것을 잘못이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³⁰⁾ 그의 Tory주의는 “모든 원칙을 부정하며”, “주식투자자의 정치학으로, 비신앙자의 종교로” 진략해 버린 Whig주의에 대한 반발이었다.³¹⁾ Herman Liebert의 표현처럼 “언을 수 없는 최상이라는 환상을 버리고 얻을 수 있는 이득을 택한 현실주의자”³²⁾의 정치관 이면에는 그의 보통사람들의 삶에 대한 관심이 항시 내재해 있는 것이다.

Johnson의 문학은 단적으로 말하면 바로 이 보통사람들을 위한 문학이었다. 19세기 이후의 비평가들이 흔히 Johnson의 약점으로 지적하는 항목들을 점검해보면 여기엔 거의 예외 없이 보통독자들에 대한 그의 관심이 개입되어있다. 가령 *Life of Cowley*에서 그가 형이상학과 시인들의 최대의 결점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도 바로 다름아닌 보통사람들의 생각과 동떨어진 곳에서 그들이 conceit를 차용해 오는 점이었다.

28) R.W. Chapman ed., *Johnson's Journey to the Western Islands of Soctland & Boswell's Journal of A Tour to the Hebrides* (London: Oxford Univ. Press, 1924, 1957), p. 20.

29) Maximillian E. Novak, *Eighteenth-Century English Literature* (Hong Kong: The Macmillan Press Ltd., 1983), p. 175.

30) Donald J. Greene, “Introduction,” *A Collection*, p. 3 참조.

31) Boswell, pp. 305, 435-6.

32) Herbert W. Liebert, “Reflections on Samuel Johnson (1948)” ; rpt. in Greene ed., *A Collection*, p. 20.

As the authors of this race[metaphysical poets] were perhaps more desirous of being admired than understood, they sometimes drew their conceits from recesses of learning not very much frequented by common readers of poetry. (p. 350)

혹은 그가 romance의 가공의 세계보다 소설의 “실제 상태의 삶”을 우위에 두면서도 항상 염려한 것은 소설들이 “모든 보통독자들에게 위험이 있”기 때문이었다(Rambler 4, pp. 155-156). 따라서 그는 소설이 실세계의 정확한 관찰, 묘사 못지 않게 도덕적인 덕목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가 전기를 가장 가치있는 문학으로 간주하는 이면에도 그의 보통인간에 대한 관심은 뚜렷이 존재한다. romance는 상상력의 허구로써 일시적인 “즐거움 꿈”만을 제시하며, ‘역사’는 효용보다는 과시에 그치고 삶을 조절해 주기보다는 이야기의 소재를 제공하는 데에 그친다. 비극의 경우도 관념의 장중함이나 허황된 장식으로 “보통관객”들의 시선을 끌 뿐이다. 이에 비해 전기는 “실제인물들의 생애의 서술”을 통해 보통의 독자들에게 훨씬 더 즐거움과 효용을 준다고 그는 주장한다.³³⁾

흔히 Johnson이 보통독자들을 위한 문학을 강조하는 사실에서 그가 문학의 ‘가르침’의 기능만 강조한다고 오해하기 쉬우나 결코 그렇지 않다. *Preface to Shakespeare*에서 그는 “시의 목표는 즐거움을 통해 가르치는 것이다(p. 304)”라고 말하고 있고 *Life of Milton*에서는 보다 더 명제적으로 “시는 상상력이 이성을 돕게하여 즐거움을 진실과 결합하는 기술이다(p. 430)”라고 정의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인간정신의 산물 가운데 그 의도로서는 최상이며 그 실제 성취에 있어서 [*Iliad* 다음으로] 둘째(p. 430)”인 *Paradise Lost*의 여러 장점을 논한 뒤 그 결점으로 제시한 다음의 귀절은 Johnson에게 있어서 ‘즐거움’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케 한다.

But original deficiency cannot be supplied. The want of human interest is always felt. *Paradise Lost* is one of the books which the reader admires and lays down, and forgets to take up again. None ever wished it longer than it is. Its perusal is a duty rather than a pleasure. We read Milton for instruction, retire harassed and overburdened, and look elsewhere for recreation; we desert our master, and seek for companions. (p. 439)

위의 인용에서 알 수 있듯이 Johnson이 의도하는 문학은 교훈이 있되 결코 즐거움이 결핍되어 있지 않은 문학이다. 그것은 독자를 지배하는 “대가”의 문학이 아니라 “독자에게 삶을 더 잘 즐기게 해주거나 삶을 더 잘 인내하게 해주는”³⁴⁾ “친구”의 문학이어야 한다.

Johnson은 여러 글에서 문학의 최종적인 판단자는 보통독자들이어야 한다고 역설한다. *Life of Gray*의 “Elegy”의 분석에서 이 점은 가장 확실히 드러난다.

In the character of his “Elegy” I rejoice to concur with the common reader; for by the common sense of readers uncorrupted with literary prejudices, after all the refinements of subtlety and the dogmatism of learning, must be finally decided all claim to poetical honors. (p. 642)

33) Rambler 60, Idler 84 참조.

34) Samuel Johnson, “A Riview of *A Free Enquiry into the Nature and Origin of Evil*,” *The Selected Writings of Samuel Johnson*, ed. by Katharine Rogers (New York: The New American Library Inc., 1981), p. 157.

Johnson은 학식있는 비평가들의 기계적 규칙과 장식적인 세련성 대신에 때묻지 않은 독자의 상식성에 더 큰 미덕을 부여하고 있다. 다시 Savage전으로 되돌아와서 이 점을 살펴보자. Johnson은 Savage가 보통사람들의 가치에 대한 인식을 얻기 전에 저지른 문학적 실수의 하나로 바로 이 보통독자들의 판단을 무시하고 학식있는 비평가들의 박수에만 귀기울인 점을 지적하고 있다.

He[Savage] did not suffer his esteem of himself to depend upon others, nor found anything sacred in the voice of the people when they were inclined to censure him; he then readily showed the folly of expecting that the public should judge right, observed how slowly poetical merit had often forced its way into the world; he contented himself with the applause of men of judgment. (p. 593)

보통독자가 “문학적 소송청구의 최종판결을 내린다”³⁵⁾는 Johnson의 생각은 그의 일생 지속된 관심이었다. Boswell도 “그[Johnson]는 실제로 모든 경우에 일반의 의견에 대해 큰 경의를 가지고 있었다”³⁶⁾고 적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점은 의문의 여지가 없는 것 같다.

IV

앞에서 우리는 Johnson의 보통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문학이 본질적으로 이들을 위한 효용과 즐거움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Johnson의 이러한 태도는 그의 비평작업의 거의 모든 요소를 설명해 주는 것이다. 가령 ‘상상력’—‘이성’ 간의 관계 역시 보통사람들의 삶을 위한 문학이라는 기본전제위에서 파악해 볼 수 있다. 흔히 18세기문학은 상상력 자체를 금기시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하나 원초적인 입장에서는 결코 그렇지 않다. Johnson에게서도 상상력의 원초적인 역할을 인정하는 발언을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다. *Rambler* 125에서 그는 비평가들의 규칙이 지켜질 수 없는 까닭을 작가의 왕성한 상상력에서 찾고 있다.

Imagination, a licentious and vagarant faculty, unsusceptible of limitations, and impatient of restraint, has always endeavored to baffle the logician, to perplex the confines of distinction, and burst the enclosures of regularity. (p. 202)

Rambler 158에서도 “스스로에게서만 공인받는, 입법자들의 전단적인 칙령”(즉, 비평가들의 독단적인 규칙)이 “위험과 모험을 하려는 상상력의 본유적 기질의 자유를 억압했다(p. 209)”라고 말하고 있다. 이처럼 그는 작가의 상상력에 대해 분명히 찬동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지나칠 경우에는 “삶을 끊임없이 잠식하는 상상력의 허기”로 변하며 “상상력의 위험한 지배”를 거쳐 “상상력의 질병”에 이르게 된다.³⁷⁾ 이러한 생각의 이면에는 분명히 보통사람의 삶에 허상을 불러일으키지 않겠다는 그의 염려가 개재되어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상상력을 동행자로 삼을 수 있으나, 이성을 우리의 안내자로 하여 따라야만 한다”³⁸⁾고

35) *Rambler* 23; Samuel Johnson, *The Rambler* (London: J.M. Dent & Sons Ltd., 1953), p. 56.

36) Boswell, p. 142.

37) *Rasselas* 32장(p. 123), 43장(p. 139) 및 46장(p. 147).

38) Boswell, p. 561.

그는 단언한다. 그 이유는 *Preface to Shakespeare*의 다음과 같은 귀절에서 확실히 드러난다.

The irregular combinations of fanciful invention may delight awhile by that novelty of which the common satiety of life sends us all in quest; but the pleasures of sudden wonder are soon exhausted and the mind can only repose on the stability of truth. (p. 301)

이 “진실의 안정성”으로 이끌어 주는 것은 바로 인간의 이성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17세기 합리주의자들처럼 ‘본유관념(innate idea)’을 믿고 이성을 과신했다는 것은 아니다. 이성이 때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도 있음을 지적하는 어귀들도 그에게는 발견된다. 가령 *Rasselas* 18장에서, 이성을 태양으로, 상상력을 유성으로 비유하며, 이성적 삶을 최고의 행복으로 내세우던 철학자도 딸의 죽음이라는 슬픔앞에서는 무력해질 수밖에 없었다(pp. 102-104). 또한 29장에서도 Nekayah의 입을 빌어 “이성이 해결 못할 수천가지 혼란 논란이 있다(p. 119)”라고 단언한다.

Johnson의 사고속에는 이성이라는 인간능력 바로 옆에 ‘경험’이라는 요소가 항상 붙어다닌다. *Idler* 84에서 romance의 퇴조에 대해 설명하면서 언급한 “상상은 이성에 지배받게 되고 경험의 수정을 받게 된다(p. 268)”라는 표현을 그의 사고속의 ‘상상—이성—경험’의 관계를 단적으로 드러내어 주는 어귀일 것이다. 그가 생각하는 이성은 결코 절대적인 이성이 아니라 보편적인 인간의 상식성을 뜻하는 이성이다. 그러므로 이것이 경험과 유리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Greene의 표현대로, 흔히 ‘이성의 시대’로 불리는 18세기의 중심어휘는 이성이 아니라 오히려 경험인지도 모른다.³⁹⁾ Johnson에게서도 경험이나 실세계에 대한 관심은 지대하다. 이미 앞에서 그가 prudence를 강조한다는 점에서도 이 점은 드러났다. 작가의 조건으로서 풍부한 학식이외에 현실세계의 관찰이 중요하다고 자주 역설하는 데서도 그의 경험강조론은 뚜렷하다. *Savage*전에서 Johnson은 이 작가가 “인간 삶의 비평가(p. 588)”로서 높은 신분의 사람들로부터 낮은 신분의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온갖 삶을 다 관찰하였으므로 극작가가 되었으면 성공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에 Milton의 경우는 책을 통한 학식은 풍부하나 “세상에 별로 섞이지 않아서, 경험이 부여해 주는 지식이 결핍하다(*Life of Milton*, p. 442)”라고 비난하고 있다. Johnson이 Shakespeare에게서 발견한 최대의 장점은 역시 “삶의 수많은 형태에 대한 정확한 지식(*Preface to Shakespeare*, p. 320)”이었다. 따라서 작가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삶의 현장에 일찍 들어 가는 것이었다.

Among the numerous requisites that must concur to complete an author, few are of more importance than an early entrance into the living world. The seeds of knowledge may be planted in solitude, but must be cultivated in public. (*Rambler* 168, p. 215)⁴⁰⁾

그러나 그의 경험의 강조는, 이성을 무시하고 감각경험을 유일한 지식의 원천으로 삼는 철학적 경험주의와는 분명한 거리를 지닌다. 감각적 지각을 우선적인 지식의 원천으로 생각하나 ‘추상적 관념’의 존재를 부인하지 않는 Locke의 제한된 경험주의는 Berkeley에 오면

39) Donald Greene, *The Age of Exuberance* (New York: Random House, 1970), p. 101,

40) 그 외에도 *Rasselas* 10장 및 *Rambler* 4(p. 156) 등 참조.

인간의 오성을 신적인 능력으로 간주하며 ‘추상적 관념’을 완전히 분쇄하기에 이르렀다. Hume에 가서는 지식은 대상의 경험 이상을 넘어갈 수 없다는 극단론으로 치달아 급기야는 우리가 흔히 안다고 간주하는 모든 것을 의심하는 회의주의로 빠져들게 되었다.⁴¹⁾ Johnson은 Berkeley나 Hume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이었다. Berkeley의 경우 “물질의 비존재를 입증하려는 기발한 꾀변”을 늘어놓는 자였고⁴²⁾, Hume은 “세상 모든 사람들보다 더 똑똑하다고 말할 만큼 독단적인 인간”이었을 뿐 아니라 불신앙의 전파자였기에 Johnson은 비판한다.⁴³⁾ Johnson에게는 이들의 경험주의 철학은 이미 경험과 유리된 독단론에 불과했던 것이다. 굳이 Johnson의 경험의 강조와 근사한 철학을 찾자면 Locke의 제한적인 경험주의일 것이다. 그러나 Johnson에게서는 ‘감각’ 경험의 증시라는 경험주의 철학의 강령을 찾기 힘들다. 오히려 실제의 삶속의 실행이라는 상식적인 의미이다. 이성애 입각한 규칙을 믿기는 하되 권위적인 규칙은 실제 삶의 기준에 비추어 거부하고(비평가들의 규칙에 대한 비판의 경우), 학문적 지식이 있어야 하지만 실제 삶에 대한 관찰을 강조하고(작가의 필수조건에 대한 논의에서), 미덕이나 행복에 대한 이론적 접근보다는 실생활에서의 실천을 강조하고(Savage의 삶에 대한 비판이나, *Rasselas*의 경우), “우리가 무엇이 될 수도 있는데—라는 관념이나 저급의 우리가 아닌 무엇이 되고 싶어하는 소망에서…저급의 우리에게 대한 고찰로 내려와야 한다”⁴⁴⁾는 소박한 경험주의이다.

이렇듯 Johnson의 사고는 어느 한쪽으로도 완전히 기울어지지 않는 “찬란할 만한 균형감각”⁴⁵⁾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Leavis의 “Johnson은 완고한 권위주의나 ‘냉소적’ 리얼리즘 어느 쪽으로도 편향성을 가지지 않았다”⁴⁶⁾라는 언명은 적절한 진술인 것 같다. Johnson의 이러한 태도는 *Rambler* 38의 제목으로 붙인 “Mediocrity”라는 말속에 모두 포함되어 있지 않나 생각된다.

Among many parallels which men of imagination have drawn between the natural and moral state of the world, it has been observed that happiness, as well as virtue, consists in mediocrity; that to avoid every extreme is necessary even to him who has no other care than to pass through the present state with ease and safety; and that the middle path is the road of security, on either side of which are not only the pitfalls of vice but the precipices of ruin.⁴⁷⁾

위의 글에 이어지는 부분에서 그는 “중간이 최상이다”라는 교훈은 “삶과 자연의 모든 부분으로 확대될 수 있는 보편적인 진리”라고 덧붙이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그에게서는 도덕의 영역이외에 문학의 영역에서도 항상 중용(Golden Mean)으로 향하려는 욕구가 존재하고

41) Paul Edwards ed., *The Encyclopedia of Philosophy*, 8 Vols (New York: The Macmillan Company & The Free Press, 1967, 1978), II, 499-503; 註 39)의 Greene, pp. 100-110; Hagstrum, pp. 3-20; Basil Willey, *The Seventeenth Century Background* (London: Chatto & Windus, 1934), pp. 264-95 참조.

42) Boswell, pp. 333-4, 1085 참조.

43) Boswell, *Tour to Hebrides*, Chapman ed., p. 177 참조.

44) *Adventurer* 128 (*Selected Writings of Johnson*, p. 104).

45) Donner, p. 109.

46) Leavis, *The Common Pursuit*, p. 99.

47) *The Rambler*, p. 86. ‘mediocrity’가 오늘날처럼 나쁜 뜻으로 사용된 것이 아남에 주목할 것.

있음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그가 항시 강조하는 것은 바로 이 중용의 상식이다. 왜냐면 “사람들은 [새로운 지식을] 주입받기보다는 [알고 있는 것을] 상기되기를 더 자주 요구하”⁴⁸⁾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이 상식을 낡아빠진 세속지식으로서가 아니라 새로움이 가미된, 인간 삶의 필수적인 지식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가 Gray전에서 “Elegy”의 탁월성을 논의하면서 이 시가 “모든 사람의 가슴들이 그 반향을 일으키는 경서들로 가득차 있다”라고 하면서도 동시에 “독창적인” 귀절들이 있음을 강조하는 데서도(p. 642) 그의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 Cowley전에서 wit를 “자연스러우면서도 동시에 새로운” 것으로 정의한다든지(p. 347), Pope전에서 “새로운 것들이 친숙한 것으로 되고, 친숙한 것들이 새로운 것이 된다”라고 한 언급(p. 550)들도 위와 같은 문맥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식적인 문학관은 “시에서 백일몽이나, 자신의 미약한 욕구와 욕망의 변형을 찾는 사람, 혹은 감정의 ‘강렬성’이라고 믿는 그 무엇을 찾으려는 사람들”에게는 별반 흥미 없는 것들일 것이다.⁴⁹⁾ 혹은 시를 삶과 무관한 시자체로서만 가치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도 흥미없는 것임에 분명하다. 하지만 보통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보통문학인(literary layman)”⁵⁰⁾의 말들이 소중했고 또 지금도 소중할지도 모른다. 그가 *Preface to Shakespeare*에서 Shakespeare의 비희극이 소위 규칙에는 어긋나지만 실제 삶의 기준에서는 보다 정당한 묘사라고 주장하면서 “항시 비평으로부터 삶(nature)으로 상고(上告)하는 길이 열려 있다(p. 304)”⁵¹⁾고 했거니와 이 말을 좀더 확대해보면 그에게는 항시 ‘문학자체’에서 ‘실제삶’으로 향하려는 노력이 지속적임을 알 수 있다. Swift전이나 Milton전에서 우리는 Johnson의 이들 시인 개인에 대한 불만이 그들의 작품에 대한 평가에까지 연결되고 있음을 보게 된다. 혹자에 따라서는 이것이 Johnson의 편잡한 독단으로 보이기도 하겠지만 이것 역시 그가 문학자체보다는 인간의 삶에 더 가치를 두고 있다는 한 증거로 보아야겠다. Joseph Wood Krutch의 말대로 Johnson은 결코 “[문학의] 비평이 삶에 대한 전반적인 비평과 본질적으로 달라야 하는 그 무엇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⁵²⁾ Addison이 Shakespeare보다 우수하다고 주장하는 Voltaire의 말에 “Addison이 시인의 언어로 말한다면 Shakespeare는 인간의 언어로 말한다(*Preface to Shakespeare*, p. 316)”고 Johnson은 답하고 있다. 문학자체보다 인간의 삶을 더 우위에 놓는 그의 끈질긴 신념의 단적인 표현인 것이다.

Savage에 대한 평가도 역시 이러한 신념의 소산이었다. 작가로서의 Savage보다 개인으로서의 그에 대한 애정이 Savage전을 기록하게 만들었을 것이다. 이 애정은 “어디에서나 즐길것은 거의 없고 인내할 것만 많은 상태인...인간삶(*Rasselas* 11장, p. 93)”, 즉 보통의 삶에 대한 Johnson의 애정이었다. Savage가 부유한 자들과의 즐거운 시절이 끝나고 인간의 고통을 다시 알게 되었을 때 내보인 인간성에의 새로운 각성을 Johnson은 다음과 같이 칭찬

48) *Rambler* 2 (*The Rambler*, p. 8).

49) Eliot, p. 276.

50) Hagstrum, p. 174.

51) *Rambler* 23에서도 보통 독자들의 판단을 소중히 여기면서 “an appeal from domestic criticism to a higher jurisdiction”라고 말하고 있다(*The Rambler*, p. 56).

52) Joseph Wood Krutch, *Samuel Johnson* (New York, 1944); Leavis, *The Common Pursuit*, p. 114 재인용.

한다.

He[Savage] was then able to discern that if misery be the effect of virtue it ought to be revered; if of ill fortune, to be pitied; and if of vice, not to be insulted, because it is perhaps itself a punishment adequate to the crime by which it was produced. And the humanity of that man can deserve no panegyric who is capable of reproaching a criminal in the hands of the executioner. (p. 590)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Savage의 것이라기 보다는 바로 Johnson 자신이 느끼려 애쓴 동정적 태도의 투영이 아니겠는가. 보통의 삶을 사랑하고 보통사람들에게 실제적인 효용이 되는 문학을 항상 강조한 그의 자세를 “보통사람들을 위한 솔직하고도 확신에 찬 대변인”⁵³⁾의 자세로 본 Humphreys의 표현은 정말 정확한 것 같다.

참 고 서 적

- Johnson, Samuel. *The Complete English Poems*. Ed. J.D. Fleeman. Harmondsworth, Middlesex: Penguin Books, 1971, 1982.
- . *Selected Poetry and Prose*. Eds. Frank Brady and W.K. Wimsatt.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7.
- . *The Selected Writings of Samuel Johnson*. Ed. Katharine Rogers. New York: New American Library, 1981.
- . *The Rambler* (Everyman's Library edition). London: J.M. Dents & Sons Ltd., 1953.
- and James Boswell. *Johnson's Journey to the Western Islands of Scotland and Boswell's Journal of A Tour to the Hebrides with Samuel Johnson*. Ed. R.W. Chapman.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24, 1957.
- Bate, Walter Jackson. *The Achievement of Samuel Johns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55.
- Boswell, James. *Life of Johnson*. 1971. Ed. R.W. Chapma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53, 1983.
- Brown, J.E., ed. *The Critical Opinions of Samuel Johnson*.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26.
- Curley, Tomas M. *Samuel Johnson and the Age of Travel*. Athens: The University of Georgia Press, 1976.
- Damrosch, Leopold, Jr. *Samuel Johnson and The Tragic Sens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2.
- Edinger, William. *Samuel Johnson and Poetic Style*.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53) Humphreys, p. 400.

- Press, 1977.
- Edwards, Paul, ed. *The Encyclopædia of Philosophy*. New York: The Macmillan Company and The Free Press, 1967, 1978. Vol. II.
- Ford, Boris, ed. *The Pelican Guide to English Literature: From Dryden to Johnson*. Harmondsworth, Middlesex: Penguin Books, 1957, 1976.
- Greene, Donald J., ed. *Samuel Johnson: A Collection of Critical Essays*. Englewood Cliffs, New Jersey: Prentice-Hall Inc., 1965.
- . *The Age of Exuberance*. New York: Random House, 1970.
- Hagstrum, Jean H. *Samuel Johnson's Literary Criticism*.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52, 1967.
- Hardy, J.P. *Samuel Johnson: A Critical Study*.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1979.
- Hobbes, Thomas. *Leviathan*. 1651; rpt. Oxford: Clarendon Press, 1909, 1958.
- Leavis, F.R. *Revaluation*. 1936; rpt. Harmondsworth, Middlesex: Penguin Books, 1978.
- . *The Common Pursuit*. 1952; rpt.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no date.
- Novak, Maximillian E. *Eighteenth-Century English Literature*. Hong Kong: The Macmillan Press Ltd., 1983.
- Raleigh, Walter. *Six Essays on Johnson*. Oxford: The Clarendon Press, 1910.
- Simon, Irène, ed. *Neo-Classical Criticism: 1660~1800*. London: Edward Arnold Ltd., 1971.
- Stock, R.D. *Samuel Johnson and Neoclassical Dramatic Theory*. Lincoln: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1973.
- Willey, Basil. *The Seventeenth Century Background*. London: Chatto & Windus, 1934.
- . *The Eighteenth Century Background*. 1940; rpt. Boston: Beacon Press, 1961.